

문화



장성 백양사



# 인간과 요정 사랑의 몸짓

광주시립무용단 6일 그리스 신화 배경 발레 '실비아' 초연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인간과 요정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발레 작품이 공연된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은 제96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실비아'를 무대에 올린다.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코렐리아'와 함께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발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실비아'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선보이지 않은 작품으로 광주시립무용단이 국내에서 초연하는 작품이다. '다이아나의 님프'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실비아'는 인간인 목동 아만타와 요정 실비아가 에로스의 화살을 맞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두 사람은 요정 실비아의 사랑을 허락치 않는 처녀의 신 아르테미스의 분노와 실비아를 홀

모하는 사랑꾼 오리온 등 해방꾼들의 방해로 이겨 나가며 사랑의 신 에로스의 도움으로 결국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 간다. 작품은 '사랑의 신 에로스의 신전 앞', '오리온의 동굴', '다이아나 신전 앞' 등 3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1952년 영국 로열발레단 버전을 김유미 단장이 재구성·안무했다. 주인공 실비아와 아만타 역으로 구윤지·김치환 씨가 출연하며 강진구·조재욱·김지희·정유진 씨 등이 함께 무대에 선다. 한편 무용단은 올 마지막 공연으로 12월 18일~19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일 예정이며 같은 작품으로 12월~24~25일 대구 초청공연을 진행한다.



〈구윤지〉 〈김치환〉

티켓 가격 2만원~5천원.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가람... 山寺... 깨달음...

### 큰 스님들의 법어를 듣다



순천 송광사 4일부터 금강산림대법회·백양사 21일부터 야단법석

울 가을 큰 스님들은 어떤 법어를 주실까? 늦가을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며 큰 스님들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대형 법회가 잇따라 열린다.

순천의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 스님)에서는 4일부터 제방에서 수행·정진하는 내노라하는 스님들을 초청해 조계종의 소의경전(근본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는 '금강산림대법회'를 시작한다.

1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열리는 법회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송광사 유나현목 스님,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 등이 차례로 법문을 들려준다. 송광사는 또 이번 법회가 열리는 49일간 매일 영가천도기도를 봉행한다. 문의 061-755-0108.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21일부터 25일까지 깨달음을 주제로 원로·중진스님들을 초청해 설법을 듣는 야단법석(野壇法席·야의 등 열린공간에서 벌어지는 큰 설법)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지리산 실상사에서 개최된 '지리산 야단법석'에 이은 두번째 법회로 조계종 원로의원인 고우 스님이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각각 주제 발

표한다. 또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각목 스님은 '초기경전', 사단법인 동사설 이사장 용타 스님은 '동사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운동'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각각 강연한다.

시몽 스님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는데,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희론(戲論)과 침묵에서 벗어나 법을 논하고자 한다"고 야단법석 개최 취지를 밝혔다. 문의 061-392-7502.

한편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 스님) 주최로 지난 달 27일 시작된 '2009 빛고을불교아카데미-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는 오는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KT정보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계속된다.

3일 두번째 강좌에서는 전 포교원장 정락 스님이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을 주제로 법문하며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11월 7일, 명진 스님), '아름다운 불공공동체'(11월 17일, 지홍 스님),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11월 24일, 법륜 스님),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12월 1일, 청화 스님) 강의가 각각 이어진다. 문의 062-376-322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시향, 더블베이스 협연무대

구자범 상임지휘자와 호흠 성민제 출연 7일 문예회관

신중플루로 예정됐던 공연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무대에 서지 못했던 광주시향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오랜만에 관객들을 다시 만난다.

광주시향이 지난 10월 티모르 올리버 차덕 지휘로 정음성국제음악제 행사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구자범지휘자와 호흠을 맞추는 건 7월 공연 후 3개월 만이다.

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서곡으로 문을 연다.

특히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눈에 띄는 건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더블 베이스 협연 무대다.

이번에 광주시향과 호흠을 맞추는 성민제(사진)는 16세 때 마티아스 스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2006),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국제콩쿠르(2007) 우승 등 세계 3대 더블베이스 콩쿠르 중 2개를 석권하며 한국을 이끌 차세대 베이시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음악가다.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 아시아 필 최연소 단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던 성씨는 금호음악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금호솔로이스츠 앙상블로 활동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성씨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하며 더블베이스 앙상블 '바시오네 아모로사'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광주시향과는 비제의 '카르멘 관타지'와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바이젠'이다.

연주회의 피날레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E단조'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하서 김인후 선생 학문·사상 재조명

장성 출신 성리학자 문장공 하서 김인후(河西·1510~1560) 선생 탄신 500주년을 앞두고 그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는 국제행사가 열린다. 필암서원(원장 유승국)은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 하서 선생의 학문과 사상세계를 재단장하는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기념하는 행사이기도한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유승국원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과 사상세계에 대해 기조발표하고, 일본 삿포로교수와 중국의 장민교수, 한국에서는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선생의 학·덕, 사상세계에 대해 각각 논한다.

한편, 16세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은 퇴계 이황과 학문으로 생애를 이룬

필암서원 국내외 석학 초청 6일 장성서 국제학술포럼

으며 문묘(文廟)에 모셔진 정몽주, 이황 등 '동국 18현(東國十八賢)' 가운데 유일한 호남 인물이다. 당일 행사를 위해 광주공원 광장에서 출발(12시 50분)해 운암동 문예회관 후문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문의 061-393-727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11월 3일은 "학생의날"입니다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열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1929년 10월 광주로 통학하는 열차속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같은 열차를 타고 있던 한국인 남학생이 이를 말리면서 싸움이 벌어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본학생은 가만두고 한국인 학생만 일방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광주에 있는 학생이 들고 일어났으며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그 날이 11월 3일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운동, 이모든 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의 날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남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해 봅시다.

-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대 불 대 학교
- 초 당 대 학교
- 한국학원 목포시 총연합회 회장 김순창
- 목포가톨릭대학교
- 동 아 인 재 대 학
- 목포과학대학
- 한국폴리텍V목포대학
- 성 화 대 학교